

국제유가, 4/4분기에 최고 85달러

Goldmansachs, 기존 전망치 유지 ... 미국 중심으로 소비량 증가

4/4분기에 국제유가가 최고 8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.

Bloomberg 통신은 “Goldmansachs가 2009년 4/4분기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”고 10월13일 보도했다.

Goldmansachs 관계자는 “4/4분기에 세계 원유 수요가 점진적(Modest)으로 늘 것”이라며 “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의 소비량이 하루 1930만배럴로 현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국제유가는 2008년 10월 이후 85달러를 밑돌았으며 현재는 WTI(서부텍사스 경질유) 기준 70달러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0/14>